문광부장관 '문화도시' 보고·토론회

"CT연구원 광주에 두는 게 맞다"

〈문화콘텐츠기술〉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3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대국민 업무보고'에 참석해 토론자와 참가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문화전당 건립, 예산 착실한 투입 중요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전당 만들어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일 옛 전남도청 인근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과 관련 광주에서 대국민보고회 및 토론회를 갖고 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사업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의 차질없는 완공을 위한 예산 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 발굴 등을 약속했다.

또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CT연구원)을 광주에 두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전당에 매년 1400억원 투입돼야=2012년 부분개관 2014년 전면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이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산의 착실한 투입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준공까지 매년 1400억원이 있어야 2011년 32%, 2012년 75%, 2013년 95%, 2014년 100%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추진단 측은 옛 전남도청 본관 및 별관 일부, 민원실 등 8개 동의 보존 건물에 대한 올해 안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이들 보존 건물에 어떤 내용을 채울 지에 대한 콘텐츠 토론회를 수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보존건물이 부분개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당 내 5개원 13개 센터 들어설듯=전당 내에는 창조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등 5개원과 13개 센터가 들어선다. 공연·전시공간으로 대극장·중극장·복합전시관·어린이전시체험관·민주인권평화기념관 등이, 연구개발기관으로는 문화콘텐츠기획센터·문화콘텐츠제작센터·아시아문화연구소·교육문화콘텐츠개발센터 등이 각각 설립될 예정이다. 교류지원기관으로는 아시아문화자원센터·아시아문화아카데미·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경영전략지원센터 등이 있다.

전체적인 전당 인원 규모는 애초 462명에서 민자유치 및 민간위탁, 아웃소싱 등을 통해 296명으로 줄일 예정이며, 5개원에서 15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개관작으로 세계적 수준의 대표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해외 거장들과 이미 접촉중이다. 또 추진단은 동남아시아(전통음악), 중앙아시아(신화 및 설화), 남아시아(무용), 서아시아(영상), 동북아시아(전통연희) 등 아시아권역 별로 특성에 맞춰 광주에 예술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 신화·설화 토대 창작 시나리오 공모전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문화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도움돼야=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정 토론자 9명 이외에도 시민들의 질문과 당부가 잇따랐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화영 충장로금남로상가번영회장은 "전당 주변은 물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전당이 됐으면 하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대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조대호씨는 '문화예술인들의 고부가가치 창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선대 독일어학과 교수인 안톤 슐츠씨는 "지역 내 인재들이 서울이나 부산으로 나가고 있다"고 개탄한 뒤 "광주가 국제 예술·문화도시가 되려면 인재 육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송진희 호남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는 광주를 명품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 뒤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전당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고 조성위원회에도 세계 각국의 유명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100%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은 없으며 뜻이 어느 정도 모이면 거기에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前군수 엇갈린 판결…재대결 무산?

전형준 200만원 벌금형·임호경 무죄…4·27 화순군수 재선거 출마 여부 관심

4·27 화순군수 재선거에 나설 전직 군수들이 나란히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서로 판결이 엇갈리면서 이들의 출마 가능성과 수년째 이뤄진 집안 싸움이 재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형준 전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동생인 전완준 전 군수를 도우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23일 1심 선고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전 군수는 1심 판결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군수에 당선되더라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심적 부담이 큰 만큼 출마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옥중 출마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동생인 전완준 전 군수가 당선 이후 징역형인 원심이 확정, 직위를 잃은 만큼 '형제의 비극' 재현 가능성과 더불어 '여론 악화'라는 두 가지 '악재'도 큰 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주당 복당을 추진했던 전 전 군수가 이러한 부담을 안고 출마를 강행할지 관심이다.

또한, 부정적인 여론에 부담을 느낀 전 전 군수 측이 다른 후보를 '대타'로 내세워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의 향후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전 전 군수 측과 '숙명의 라이벌'인 임호경 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전완준 전 군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군수는 이후 민주당 복당을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자 22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지만 무소속의 전완준 전 군수에게 패한 전력이 있어 재기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전 전 군수가 벌금 200만 원이라는 선고를 받은 만큼 일명 '부부군수' VS '형제군수' 간 재대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역에서는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두 집안의 해묵은 싸움으로 군 이미지와 민심이 크게 악화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야말로 새로운 선거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민주 화순군수 후보 경선으로 뽑는다

3~4명 공모 예상…이달말 방식 결정

민주당은 4·27 화순군수 재선거 후보 공천 방식과 관련해 경선을 치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3일 "오는 25일까지 화순군수 재선거에 나설 후보를 공모한다"라며 "3~4명 이상의 후보가 공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한 후보 선정을 위해 경선을 치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현재 배동기(55) 전 화순부군수가 홀로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이며, 홍이식(53) 전남도의원은 일찌감치 중앙당 등에 공천 신청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근기 화순군수 직무대행 측이 최근 전남도당에 공천신청 절차를 알아보는 등 민주당 입당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김형래(54) 동북농협장도 민주당 내 경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출마 예정자로 꾸준히 거론돼왔던 구충곤(51) 전남도립대 총장은 이번 재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27 민주당 화순군수 재선거에는 3~4명 정도가 공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당은 공모를 마감하면 이번 주말께 상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선 방식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입당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던 전형준 전 군수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민주당 입당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데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수에 당선되더라도 당선이 무효 돼 재선거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내 해조류 방사능 농축계수 IAEA 권고치 초과

"섭취엔 이상 없어"

우리나라 근해 해조류의 방사능 물질 농축계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권고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따르면 지난해 강릉 근해에서 채취된 미역의 스트론튬 90 농축계수는 17로 IAEA 권고치(10)를 훌쩍 넘겼으며 인천 근해의 미역도 10으로 권고치 상한선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강릉, 여수, 군산 근해에서 잡은 조개류의 플루토늄 농축계수 평균은 2813으로 IAEA 권고치 3000을 밑돌았지만 강릉 근해 민들조개의 농축계수는 6341에 달했다.

또 한반도 전체 해역에서 플루토늄 239 및 240, 세슘 137, 스트론튬 90 등 인공적 핵분열에서만 생성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는데 지난해 4월 한반도 주변 해역 20곳에서 채취한 표층 해수에서 플루토늄 239 및 240의 평균 농도가 1kg당 2.91~6.82μBq(마이크로베크렐)을 기록했다.

특히 2006~2010년 표층해수의 방사능 농도 평균값이 울진원전 인근의 플루토늄 239 및 240 농도가 6.0μBq/kg으로 가장 높았고 영광원전 남쪽 해역도 5.0μBq/kg 이상으로 원전과 가까운 바다에서의 농도가 높게 검출됐다.

KINS 관계자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플루토늄 농도가 높은 것은 1950~1960년대 태평양에서 실시한 미국 핵실험에서 유래된 낙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농축계수는 환경 속에 있는 여러 물질들이 생물체의 몸 안에 얼마나 높은 농도로 쌓이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우리나라 근해에서 채취된 해산물은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